

정효민·김인식 PD, “정주행 하는 예능 만들고 싶었어요”

‘코리아 넘버원’ 시대 역행하는 예능 콘텐츠 유재석·김연경·이광수 출연 전통문화 체험

넷플릭스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코리아 넘버원’은 시대에 역행하는 예능 콘텐츠다. 연애를 소재 삼아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연출해 관심을 받을지 고민하는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코리아 넘버원’은 세련되지 않은 제목처럼 유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컨셉트는 아주 간단하다. 3명의 출연자가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는 것. 그런데 이 프로그램, 참 묘하다. 자극적인 음식이 쉽게 질리고 삼삼한 음식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처럼 일단 한 번 재생 버튼을 누르면 계속 보게 된다.

유재석·김연경·이광수 세 사람은 한여름 땀방울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된 노동에 지치지 않으려고 싫은 농담을 서로에게 던져 대는데, 처음엔 심드렁하게 보다가도 이내 연신 미소를 짓게 된다. 이런 저자극 매력 덕분인지 ‘코리아 넘버원’은 이례적으로 공개 이후 키즈 부문 1위에 오르며 전 연령대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코리아 넘버원’의 정효민·김인식 PD를 만났다. 두 사람은 시청자 반응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예능도 정주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회당 분량을 40분 정도로 압축하는 것이었는데, 목표를 달성했고 성과가 있다고 자랑했다.

정 PD는 SBS와 JTBC, CJ ENM을 거쳐 자신이 만든 스튜디오의 첫 작품으로 ‘코리아 넘버원’을 내놨다. ‘미녀사냥’ ‘슈가맨’ ‘효리네 민박’ ‘일로 만난 사이’ ‘엔애프’ 등 히트작을 연달아 연출했던 그는 “이번 프로그램 역시 쉽지 않았다”고 했다. CJ ENM에서 정 PD와 함께 ‘일로 만난 사이’를 만들었고, 정 PD가 만든 스튜디오에 합류해 ‘코리아 넘버원’을 다시 함께한 김 PD는 “이제 한여름 촬영은 가끔씩 피하고 싶다”고 말하며 웃었다. “PD 8명, 작가 8명, 촬영감독님들, 이외에도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었죠. 이 8회 분량 예능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 단계까지 하면 1년

을 매달렸어요. 다음 예능은 아주 가볍게 가고 싶어요.”

“‘코리아 넘버원’이 공개됐다. 시청자 반응은 체크해봤나. 현재 반응에 만족하나.”

“(정효민 PD 이하 정) OTT에서 예능을 선보이는 건 처음이다. 그 전까지는 반응을 시청률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청률이 없으니 조금 열떨었다. 넷플릭스 순위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보고 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반응이 많다. ‘코리아 넘버원’은 자극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OTT에선 자극적인 게 더 유효한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우리 시도가 통하는 것 같아서 좋다. 가장 신기한 건 해외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다. SNS 통해서 홍콩·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있는 친구들한테 잘보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하지 않나.”

“(정) 채널에 있을 때는 시청률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시청률이 사라져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040 시청률을 보기도 한 거다. 그런데 이번엔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불안하다.(웃음)”

“(김인식 PD 이하 김) 문제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느냐다. 넷플릭스는 직접 선택을 해서 보는 거다. TV방송처럼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보거나 그냥 틀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지금 반응이 더 좋다. 만약에 TV 예능보다 우리 프로그램 관련 기사 댓글이 10분의1이라고 해도 그 댓글은 직접 본 사람의 댓글이니까 의미가 있다.”

“‘코리아 넘버원’은 유재석씨가 ‘무한도전’ 때부터 밀어왔던 컨셉트와 겹친다. 힘든

일을 하면서 웃음을 주는 형태랄까. ‘일로 만난 사이’도 유사한 스타일의 예능이었고, 그 프로그램을 직접 연출하기도 했다. 또 비슷한 것을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엔 어떤 차별점을 두려고 했나.

“(정) 예능 장르가 무한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몇 개 카테고리만 정리된다. 음식·힐링·여행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비하면 노동은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노동’이라는 말을 예능에서 쓸 수 있는지를 가지고 장시간 회의할 정도로 고민하면서 ‘일로 만난 사이’를 만들었고, 이 장르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라는 데 자부심이 있다. ‘일로 만난 사이’가 코로나 사태와 얽히면서 오래 가지 못한 게 아쉬웠다. 이 컨셉트를 보강해서 더 재밌는 예능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일로 만난 사이’와 ‘코리아 넘버원’은 노동이라는 코드는 같지만 지향점은 다르다. ‘일로 만난 사이’가 토크쇼라면, ‘코리아 넘버원’은 말 그대로 웃음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이 지향점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는 만족감이 있다.”

“한국 전통문화를 다룬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에 알려질 수도 있다. 예능이지만 사명감도 있었을 것 같다.”

“(정) 기획 단계에선 그런 사명감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했다. 장인들은 평생 전통문화 관련 일을 해온 분들인데 가볍게 다룰 수만은 없지 않나. 그래도 우리는 예능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전통문화에 쉽고 재밌게 다가가고 싶었다. 재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나. 이미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가 많다. 우리 전통문화 개론서 또는 입문서 정도 역할을 하려고 했다.”

“유재석·김연경·이광수, 이 조합은 어떻게 만들었나. 그리고 이들의 합은 어땠다고 보나.”

“(정) 출연진이 너무 익숙해서도, 그렇다고 너무 낯설어서도 안 된다. 이 세 분이면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세 분이 이전에 예능에서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김연경씨는 최고의 배우인 수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귀엽고 막내 동생 같다. 정말 많은 예능에서 섭외가 들어왔는데, 우릴 택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광수씨는 예능을 오래 했지만 많이 하지는 않았다. 이번의 인간적인 매력이 이번에 잘 드러났다고 본다. 특히 이광수씨는 낯설고 조심스러운 관계를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김연경·이광수라는 새로운 조합 생기면서 유재석씨와도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고 본다. 블렌딩이 잘 된 조합이다.”

“유재석씨와는 ‘슈가맨’부터 ‘일로 만난 사이’ 그리고 ‘코리아 넘버원’을 함께했다. 유재석씨와 함께 일하는 장점은 뭐가. 그리고 단점은 뭐가.”

“(정) 단점은 긴장을 못 풀게 한다는 것이다.(웃음) 모든 작업을 마치고 공개가 되는 순간까지 긴장하게 만든다. 나에게 괴로운 일이지만, 그건 결국 유재석씨의 장점이다. 유재석씨에게 사명감이 있다. 우리는 ‘코리아 넘버원’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랐다. 요샌 OTT와 유

튜브를 통해 나만 좋아하는 콘텐츠를 즐기는 시대이지 않나. 하지만 유재석씨를 포함해 우리 다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은 만들자고 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고 본다.”

“(김) 유재석씨는 촬영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준다. 스태프와 장인 분들까지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 그의 이런 면이 우리가 단순히 촬영하려 온 게 아니고 장인에게 뭔가를 배우러 왔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본다.”

“시즌2도 나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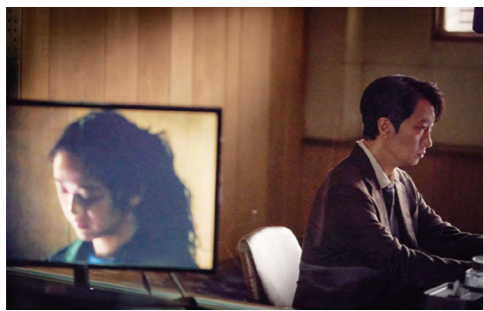
“(정) 반응이 좋다면 고려해보지 않을까. 시청자 도움이 절실하다.(웃음)”

“시즌2가 나온다면 보완할 점은 뭐가.”

“(정) 시청자들이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좋게 봐주는데, 카메라에 미처 다 담지 못한 것들이 있다. 시즌2를 하게 된다면 더 우리 전통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더 자세히 담아보고 싶다.”

“(김) 조금은 덜 더울 때 하고 싶다.(웃음) 뉴스

박찬욱 ‘헤어질 결심’, NYT 선정 올해 10대 영화 포함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뽑은 ‘올해 10대 영화’ 목록에 포함됐다.

NYT 공동 수석 영화평론가인 마블라 다기스는 6일(현지시간) 올해 개봉작 중 자신이 눈여겨 본 10편의 영화를 소개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8번째로 선정했다.

영화평론가인 마블라 다기스 8번째로 선정

다기스는 “이 미로 같은 영화의 ‘아찔한 즐거움’ 중 하나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현기증’(1958)에서 남자 탐정의 미스터리한 여자에 대한 집착이 연상된다는 점”이라면서 “다시 한 번 사랑과 배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있다. 하지만 ‘헤어질 결심’은 전개될수록 특유의 쫓고 리듬이 자리 잡으면서, 영화의 감정적 초점은 집착하는 연인에서 무자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선의 대상으로 점차 옮겨간다. 박 감독의 영리한 오마주는 가슴 아픈 응수로 변한다”고 봤다.

‘헤어질 결심’은 산(山)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해준’(박해일 분)과 사망자의 아내 ‘서래’(황예민 분)사이에서 벌어지

는 의심·관심을 기반으로 삼은 ‘이상한 멜로’다. 박 감독은 지난 5월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로 감독상을 받았다.

내년 3월 열리는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장편영화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점치고 있다. 한국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영화를 해당 부문에 출품했다. 앞서 2020년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기생충’도 직전 해에 뉴욕타임스 평론가들이 뽑은 올해 영화 3위에 선정됐었다.

한편 다기스는 ‘헤어질 결심’ 외에 ‘EO’(에지 스킨리프스키), ‘쁘띠 마담’(셀린 시아마), ‘놈’(조던 필) 등을 1~3위로 꼽았다.



김계란·풍자, ‘세치혀’ 8인 라인업 공개

유튜버 김계란과 풍자가 핫바다로 빅매치를 펼친다.

MBC 파일럿 예능 ‘핫바다 종합격투기 세치혀’는 썰의 고수들이 링 위에서 스토리텔링 맞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7일 ‘핫바다 종합격투기 세치혀’는 첫 방송을 앞두고, 최강 썰 파이터 8인을 공개했다. 유튜버, 작곡가, 가수, 이혼 전문 변호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약 중인 썰 고수들이 등장한다.

김계란은 309만 구독자를 보유한 헬스계 대표 크리에이터다. 그는 “허도 근육인 거 아시죠”라며 승부에 자신감을 드러낸다. 김계란은 헬스장에서 일어난 기상천외한 에피소드들을 공개한다. 풍자는 구독자 80만 명을 보유한 트랜스젠더 크리에이터다. 그는 “인생이 산전수전 공중전 때문이었다. 가장 센 맛을 들려드리겠다”라며 화끈한 마라탕 입담을 예고했다.

‘트롯 나라 세치혀’는 故송해 단짝이자 작곡가다. 그는 “노래가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세

상을 바꾼다”라며 작곡가 생활에서 겪었던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예정이다. ‘메서드 새뽕 세치혀’는 고전문학 강사로, 놀라운 고전문학 스토리로 시청자를 사로잡는다.

‘동화 나라 세치혀’도 승부에 출사표를 던진다. ‘동화 나라 세치혀’는 동심을 사로잡는 손짓과 솔깃하게 만드는 보이스로 과몰입 유발하는 썰을 풀 준비를 끝마쳤다. ‘미스터리 세치혀’는 미스터리 썰 마스터다. UFO, 귀신, 음모론, 미제 사건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혼 전문 변호사 ‘불륜 잡는 세치혀’도 출격한다. 그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며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실제 사례를 공개한다. 2번 복송, 3번 탈복을 거쳐 한국으로 건너온 ‘탈북 세치혀’ 윤실미도 등장한다. 그는 “이 핫바다 하나로 살아남았습네다”라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털어놓는다. 오는 11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

카라, 日 굳건한 인기...10년 만에 ‘엠스테’ 출연

2010년대 초반 일본을 휩쓴 K팝 대표 2세대 걸그룹 ‘카라(KARA)’가 굳건한 인기를 최근 재확인하고 있다.

7일 소속사 DSP미디어에 따르면, 카라는 오는 23일 현지 대표 음악 프로그램인 일본 TV 아사히 ‘뮤직 스테이션(MUSIC STATION·엠스테)’에 출격한다.

약 10년 만에 ‘엠스테’에 등장하는 것으로 카라의 해당 프로그램 출연은 이번이 9번째다. ‘엠스테’는 일본에서 36년째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간판 음악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엔 카라가 출연하는 방송분의 ‘엠스테’는 연말 특집으로 꾸며진다. 약 6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카라는 1차 라인업에 국내 걸그룹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카라는 ‘엠스테’에서 스페셜 앨범 ‘무브 어게인(MOVE AGAIN)’의 타이틀곡 ‘웬 아이 무브(WHEN I MOVE)’와 히트곡 ‘미스터’ 무대를 선보인다.

카라는 ‘엠스테’ 출연에 앞서 오는 21일 일본에서 데뷔 15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무브 어게인’을 발매한다. 일본 정규 5집 ‘걸스 스토리(Girl's Story)’ 이후 약 7년 6개월 만에 선보이는 일본 앨범이다. ‘웬 아이 무브(WHEN I MOVE)’의 일본어 버전을 포함해 신곡 6곡이 수록됐다.

이날 유니버설 재팬 유튜브 채널에 ‘웬 아이 무브(WHEN I MOVE)’ 일본어 버전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일본 활동 초입기에 들어갔다. 카라는 내년 2월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등에서 팬미팅을 열고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데뷔 15주년을 맞은 카라는 일본 데뷔 후 해외 여성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오리콘 주간 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도쿄등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하는 등 일본 내 K팝 걸 그룹 한 획을 그었다.